‘국방력 강화·경제 현대화’ 촉구

北 신년사, 핵·대미관계 언급 없어…6자회담 감안한 듯

북한은 1일 2007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자주적 국방력 강화를 역설하고 경제 현대화를 촉구했다.

또 내년 남한의 대통령 선거를 맞아 ‘친미반동 보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면서 ‘민족중시입장’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핵 문제나 대미관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아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지에 ‘승리의 신심 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떨쳐 나가자’는 제목으로 실린 공동사설은 “국방력 강화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며 “자주적 국방력에서 기본 역량을 이루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사설은 지난해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숴야 한다”며 경제발전을 강조했다.

이 사설은 “경제강국 건설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이고 강성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역사적 위업”이라며 ▲과학영농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 ▲경공업 혁명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 발전 등을 과업으로 제시했다.

공동사설은 경제건설에서 내각의 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경제관리를 실리가 나게 우리식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06 황당한 뉴스들

터키 항공사 직원들이 이스탄불 공항에서 낙타를 제물로 이슬람식 의식을 치른 일부터 스프레이 식으로 뿌리는 간편한 콘돔을 발명한 독일인에 이르기 까지 2006년 한해에도 진기하고 색다른 뉴스들이 줄을 이었다.

용의주도하지 못한 절도범들은 지난해에도 곳곳에서 나타나 독일에서는 절도범이 현장에 생생한 지문을 남겨 수배 몇시간 만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빈에서는 연구용으로 미라 처리를 한 인체의 머리를 8개나 보관해둔 치과의사 집에 도둑이 들었다가 훔쳐도 보기 전에 혼비백산해 사라진 일도 있었다.

식품 절도 사건과 관련해 마을 사람들의 결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인도 촌락 지도자들이 무려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끓는 기름에 손가락을 담가보라고 지시한 일도 벌어졌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호주 운전자가 길에서 잡아올린 살아있는 뱀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

독일 쾰른에서는 신원을 속인 두명의 여성에게 가슴 성형 수술을 해주고 돈을 받지못한 성형외과 의사가 범인 수배 사진 제작용으로 확대 성형수술된 이 여성들의 가슴 사진을 제출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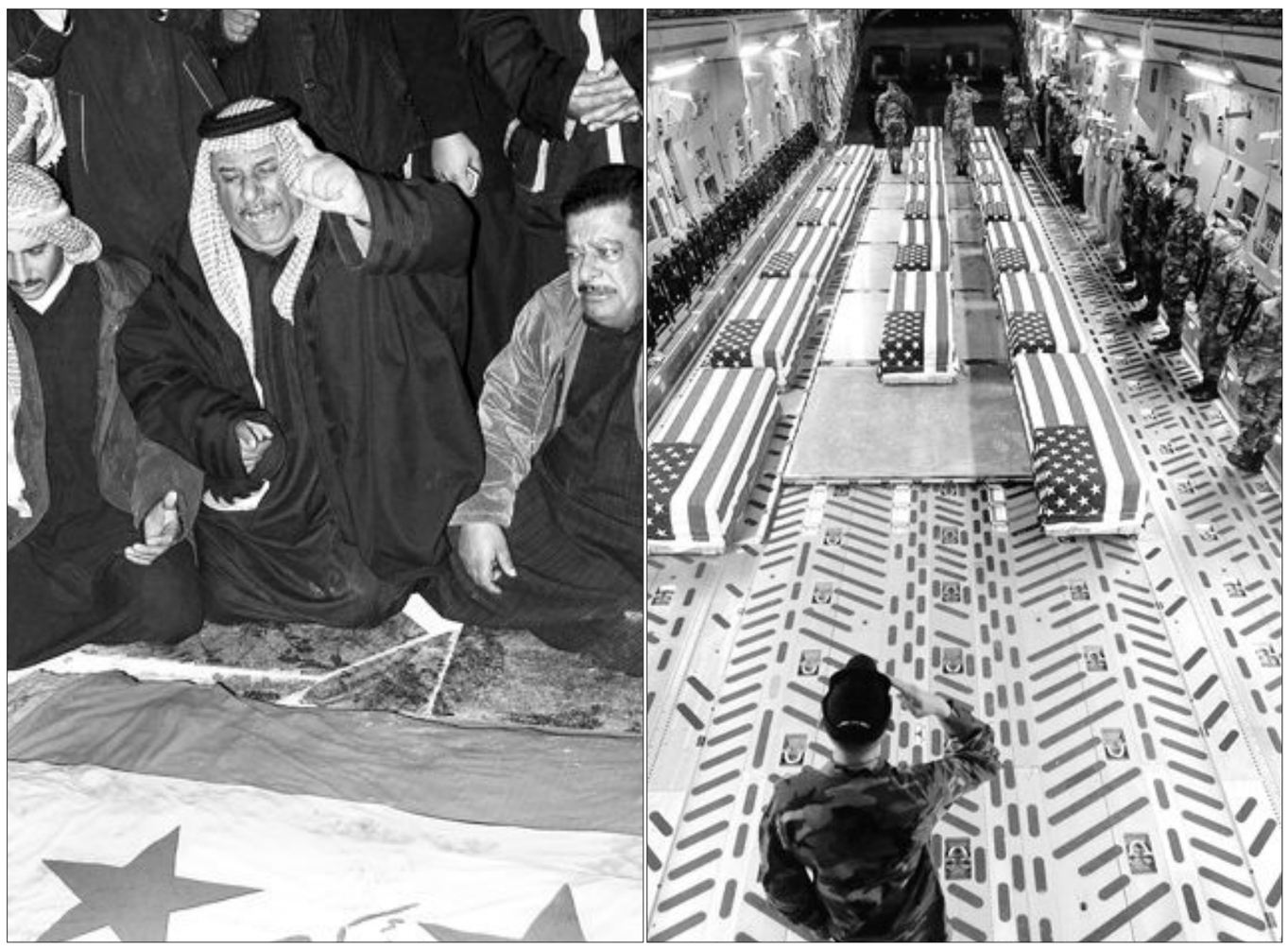
비극적인 일도 많아 하노이에서는 전기에 감전되지 않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TV 프로그램에 까지 나왔던 베트남인이 발전기를 수리하다 감전사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치인들의 세계에서도 이상한 일은 벌어진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메추라기 사냥을 나갔다가 친구에게 오인 사격을 가하는 실수를 벌였고 헝가리의 페렌츠 총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가 전국적인 폭동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결백하면 끓는 기름에 손가락 담가 봐”

헝가리 총리, 거짓말 시인에 폭동 사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시신이 구랍 31일 새벽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티크리트 인근 고향마을 오우자에 매장되는 동안 그의 친척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 왼쪽〉 지난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46개월만에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수가 3천명을 기록한 가운데 미 동부 델라웨어주의 도버 공군기지에서 미군 병사들이 전사자의 시신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AP로이터=연합뉴스

후세인, 고향마을에 매장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시신이 구랍 31일 티크리트 인근에 있는 고향마을인 오우자에 매장됐다고 알-자지라 TV가 보도했다.

오우자에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후세인의 아들 우다이와 쿠사이의 묘가 있다.

후세인의 출생 부족인 알부-나시르족의 알리 알-니다 대표는 기자들에게 후세인의 시신이 사형 집행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날 새벽에 매장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라크에서는 산발적인 폭탄테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항세력의 움직임이 본격화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후세인 지지세력은 ‘복수’를 맹세하고 있어 언제라도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수니파 ‘복수’ 맹세, 긴장 고조

◇**교수형 장면 담긴 동영상 공개**=후세인의 교수형 집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생생히 촬영한 동영상이 미국 인터넷매체 드러지 리포트에 공개됐다. 드러지 리포트는 31일 ‘휴대전화로 찍은 처형 비디오(Cellphone video of execution)’라는 제목으로 2분36초 분량의 비디오를 공개했다.

이 비디오에는 후세인이 교수대 위에 서 있는 장면부터 목에 밧줄이 걸리는 모습, 형 집행 순간, 발판이 꺼진 뒤 후세인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다.

◇**처형 직전까지 설전**=후세인은 구랍 30일 처형 직전 미국과 이란, 반역자들을 저주하고 참관인과 설전을 벌이는 등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후세인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신병이 미군에서 이라크 당국에 넘겨진 뒤 사형장의 사무실에서 그의 협의와 관결이 다시 낭독되는 동안에도 “조국 만세, 국민 만세, 팔레스타인 만세”를 외쳤다.

처형 직전까지 참관인과 설전

교도관 중 한 명이 “당신은 우리를 파괴했다. 우리를 죽였다. 우리가 궁핍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고 비난하자 후세인은 “나는 너희를 궁핍과 고통에서 구했고 너희 적들과 페르시아인과 미국인들을 파괴했다”고 맞섰다.

◇**수감생활 뒷 이야기**=사담 후세인의 수감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미군은 후세인이 시작(詩作)을 했으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던 일들을 회상하는가 하면 빵조각을 새들에게 먹이는 등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다정다감한 일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라크戰 미군 전사자 46개월만에 3천명 돌파

지난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수가 3천명을 기록했다고 AP통신이 31일 보도했다.

AP는 이날 미 국방부가 지난 28일 텍사스 스프링 출신 더스틴 도니카(22) 상병이 바그다드에서 저항세력의 소화기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며 AP 자체 집계결과, 이라크 미군 전사자수가 3천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이라크 미군사망자수를 집계하는 웹사이트(www.icasualties.org)를 인용, 이라크전쟁 미군 전사자수가 3천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사망자수가 3천명을 넘어선 것은 전쟁이 시작된 지 46개월만이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정책노선 수정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내에서 미군 철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불명예스런 기록’이 이뤄짐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최종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

潘총장, 비서실장에 남비아르 임명

새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반기문 신임 유엔 사무총장은 수주간의 숙고 끝에 첫 인사로 구랍 31일 인도출신의 비자이 남비아르 전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반 총장은 또 아이티 출신의 방송인인 미셸 몽타스를 유엔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유엔 성명을 통해 밝혔다.

몽타스 신임 대변인은 전임 스테판 뒤자릭(프랑스) 대변인의 후임이다.

한편 유엔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직 발표되지 않고있는 행정운영담당 사무차장에는 전임 코피 아난 총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알리시아 바르세나(멕시코)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홍콩, 세계 유일 금연도시 된다

공공장소 50만곳 금연 구역 지정

홍콩이 1일부터 금연구역을 모든 실내 사업장뿐 아니라 공원, 놀이터, 버스 정류장 등지로 대폭 확대하면서 세계 유일의 완전 ‘금연도시’로 성큼 다가섰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10월 논란속에 통과된 금연조례를 이날부터 정식 시행키로 하고 식당, 술집 등 모든 실내 사업장과 해변, 운동장, 공원, 체육관 등 50만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붙은 담배를 들고 들어갈 경우 최고 5천홍콩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주도 최고 징역 2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사우나, 마작게임방 등 6개 유형의 업소에서 금연은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홍콩=연합뉴스